월/요/광/장

서선희

의료체계와 광주

평균수명이 80세를 넘어서고 있다. 평균수명의 증가는 유병률(有病率)의 증가를 가져온다. 선천적으로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도 나이가 들면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미처 늙기 전에 수명이 다하는 과거와는 달리 노년기 전체를 살아내야 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누구나 몇 번은 병원 신세를 진 후에라야 생을 마감할 수 있게 된다.

질병에 걸렸을 때 제때에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러한 치료가 가계 파탄으로 연결돼서는 않되는 것이 인간다운 삶의 기초이다. 치료가 가능한데도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치료받다가 빈곤층으로 밀려 떨어진다면 질병 앞에서 우리는 '피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 점점 더 오래 살아야 하는 노령화 사회에서 의료복지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나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고 모두의 문제이다.

이렇게 중요한 의료체제가 우리의 경우 빨간 불이 들어와 있다. 한국의 의료보험 문제 중 가장 시급한 과제는 재정 확보인 것 같다. 아마 지금 이대로 간다면, 건강보험 재정은 2009년 30조 원에서 2014년 50조 원이 되고, 2020년에는 100조 원이 예상된다고 한다. 현행의 의료 보험 체계로는 이 같은 급격한 재정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따라서 개혁이 불가피한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흔들리는 현행 의료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의료 민영화가 제기되고 있다. 의료 민영화는 의료를 정부 중심의 공공 수단이 아닌 영리법인이나 보험회사를 통해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의료의 영리 추구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의료 민영화는 또 다른, 특히 서민 계층에게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다. 의료 민영화는 병원 간의 경쟁을 부채질할 것이고 병원 간의 경쟁은 병원비의 대폭 증가를 가져 올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간 의료보험이 점차 확대되어 의료보험 체계 중심에는 민간 의료보험이 놓이게 되고 국민 건강보험은 변두리로 밀려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원하는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진료비를 지불해야 하고, 우리가 받게 되는 진료는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했는지 그리고 그 민간 의료보험이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결국 의료 민영화는 의료이용의 양극화와 계층화를 가져와 보통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거나 부담을 과중 시킨다.

의료 민영화는 현행의 의료 제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적합한 방법이 될 수 없다. 민영화를 꾀하지 않고 현재의 의료 보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하나 더 있으니 의료 복지에 관한 지방 정부차원의 관심이다.

현재대로 간다면 광주는 앞으로 더 노령화될 것이며, 의료 복지는 여타의 지역에 비해 그 어느 곳보다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관한 광주시의 관심은 높지 않다. 근래에 들어 광주의 의료 복지가 과거보다는 향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수요자의 입장에서 볼 때 광주의 전반적 의료 서비스는 결코 만족스럽지 못하다.

병원 간 또는 병원 내에서의 협진, 새롭게 도입한 의료 장비와 도구의 신뢰할만한 사용, 신뢰감 가는 진단과 치료 기술, 환자와 의료진 간의 의사소통 등등에 여전히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느낌이다.

광주에서는 많은 사람이 아프면 서울로 치료를 받으러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로 치료받으러 가는 사람들을 "사대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나무라거나 '지방의 열악한 의료 환경'만 탓하는 것은 소극적 대응이다. 현재 광주의 의료체계의 문제점들을 연구하여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광주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진료 체계의 조성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필요가 있다.

아픈 몸을 이끌고 구태여 서울에까지 원정 갈 필요를 없애주는 의료 복지의 확보는 광주의 도시 경쟁력과 현재의 시정이 목표로 삼고 있는 '행복한 광주' 건설에 필수적이고도 기본적이다.

〈광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조칼럼

박재우

우리 청소년들 더 강하게 키워야

교육에 몸담고 있지도 않은 사람이 교육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부적절하게 보일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사회 여러분야에서 요청한 강의를 하다 보니 자연히 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청소년 교육에 대한 관심은 강의 요청을 받을 때마다 더욱더 새로워지곤 하였다.

법무부 주최로 시행되는 '법 생활화 교육'은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공동체 일원으로서 법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학교 생활에서 뿐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준법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강의 대상이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교육의 취지에 맞게 이해하기 쉽고, 머리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강의 전 머릿속을 떠나지 않은 고민이기도 하였다.

신문지상 등에서 보도되는 청소년들의 비행과 그들간의 관계속에서 발생하는 폭력·집단 따돌림, 금전 갈취 등의 행동들을 어떻게 하면 사전에 예방하고 그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동안 정부에서는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그 수가 줄어들기는커녕 양과 질면에서 더욱더 자극적이고 폭력적이며 그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교육현장에서 접한 우리 청소년들은 인내심과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점을 여러 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가 있었다.

40분여 분의 강의 시간에 강의를 경청하려는 학생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상당수 학생은 주의가 산만하고 강의를 하는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경우가 많아 '순간의 순발력'을 동원하여 학생들의 집중을 이끌어내는 묘기를 발휘하여야 한다.

인내심은 자기 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시초이자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며, 타인에 대한 배려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구현의 기본원리가 아닌가.

학습현장에서조차 인내심이 없이 안하무인격인 자세로 교육을 받고 가장 가까운 동료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청소년들에게 강한 인내심, 타인에 대한 배려,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소양을 쌓게 하기 위해서는 공부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 특정 과목에 대한 집중 교육보다는 수준에 맞는 여러 가지 책을 읽고 느낀 점을 수시로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여 이를 기초로 상호 토론하면서 지적 호기심을 키워나가야 한다.

여기에 협동심과 리더십을 기르고 공동체 의식을 기르기 위한 수련회나 봉사활동을 반복적으로 시행하고, 교사들도 소신있게 학생 생활지도를 한다면 더욱 많은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글로벌 교육을 외치면서도 한없이 무기력하고 단조로운 시간을 견디지 못한 인터넷 세대들의 현 실태를 그저 세대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이들이 다양한 것을 경험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며 사고할 수 있도록 보다 강하게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글로벌 인재는 수학, 영어 잘한다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광주지방변호사회 변호사〉

기고

심명섭

Reader가 Leader다

여름방학이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여름방학이 누구보다 알차기를 기대할 것이다.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뒤떨어진 과목 보충과 앞서 있는 과목에 시간을 집중 투자하여 아이들을 Leader로 만들기 위해서다.

우리는 이처럼 1등만이 살 길이라고 하여 누구나 Leader가 되는 일에 열을 올린다. 하지만 모두가 Leader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덕목은 Reader인지도 모른다.

Reader는 책을 끊임없이 읽는 사람, 즉 책을 통해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다. 또 독서를 통해 기본적인 스킬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해 낼 수 있는 사람, 자기 책임을 다하면서 예견된 결과를 도출해내는 사람이다. 따라서 누구나 열심히 하면 Reader가 될 수 있다.

그러나 Leader는 그 시각이 오늘에 있지 않고 내일에 있다. 1년 뒤를 보고, 3년 뒤를 보면서 바뀌어질 미래의 입시 방향이나, 교육정책 등을 미리 예견하면서 그 변화에 맞는 학습방향을 설정하거나 변화에 맞는 사고의 체계를 바꾸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지난날의 Leader는 초원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동처럼 일사불란하게 양떼를 다스리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래서 팔로어(follower)들은 리더의 뜻에 따라 군소리 없이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처럼 유능한 Leader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녀야 한다고 착각했었다.

그러나 지식기반사회는 그 트렌드(trend)가 완전히 변했다. 그것은 Reader를 통하지 않고서는 훌륭한 Leader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Leader가 되기 위해 창의력을 키우고, 학습능력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독서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알다시피 학창시절 진로를 탐색하고 체험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러나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책을 읽은 학생들은 독서를 통해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발견할 수 있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2011학년도 고등학교 입시의 핵으로 부상한 지금, 이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학생들이 그 동안 공부했던 기록물, 자료 특히 독서활동기록 등을 입학사정관에게 제출하고, 입학사정관이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능력과 잠재력,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전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과 소질을 바탕으로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독서 포트폴리오(Portfolio)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독서 포트폴리오란 독서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경험, 또 진로선택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자료집 이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단기간에 작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관리를 해야 한다. 단순히 지금까지 읽었던 책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설정한 진로를 위해 어떻게 학습 계획을 실천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때문에 올 여름 방학은 지금까지 세웠던 지나친 교과학습에서 탈피하여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진로를 설계하면서 어떤 책을 읽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하는 독서 포트폴리오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Reader가 먼저 되어보면 어떨까 생각된다.

〈전남대학교 중앙도서관 과장·행정학박사〉

어린이 오토바이 탑승시 안전장구 반드시 착용해야

며칠 전 오토바이 한 대가 오기에 무심코 봤더니 운전자의 등 뒤에는 마치 매미처럼 어린아이가 둘이나 붙어 앉아 있었다. 어른은 물론 아이들 모두 머리에 헬멧을 안 쓰고 있어 너무나 위험해 보였다.

직진 신호를 받은 이 오토바이는 출발 후 커브를 트는가 싶더니 뒤에 탔던 어린아이 손에 들고 있던 뭔가를 떨어트렸다. 순간 그 옆을 질주하던 택시가 사람이라도 떨어지는 줄 알고 놀래서 급정거를 했고 그 장면은 너무나 아찔했다.

오토바이 뒤에 탄 어린이는 정지, 출발, 굴곡이 있는 도로를 운행할 때 오토바이에서 떨어질 위험성이 너무나 크다.

내 아이의 안전을 위해 오토바이 뒷좌석에는 절대 어린이 탑승을 삼가하고,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할 것이다.

당장 편리함과 편의성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뒤에 태우거나 혹은 앞에 태우고 운전해서 가는 오토바이들, 정말 위험천만하다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다.

▲송은숙·광주시 북구 풍향동

병 함부로 말하는 행위 환자 가족들에겐 상처

얼마 전 고모부님이 폐암에 걸리셔서 병원에 모신 적이 있었다. 가족은 모두 근심어린 상황에 빠져 있었는데, 마침 병실에 왔던 다른 환자 가족이 옆에서 "얼마 전에 들어왔던 말기 간암환자가 결국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셨데요"라고 대화를 시작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그럼 포기한거래요?"라며 암환자 얘기를 계속해서 화제 삼았다.

거의 생명 시한을 선고받은 환자 옆에서 큰 소리로 그런 말을 하니깐 우리 쪽 가족들의 불안감과 두려움은 더 컸고 고모부님을 뵙기가 민망하고 너무 죄송스러웠다.

일부 간병인들이나 환자 보호자들이 이 병동, 저 병동을 들락거리며 다른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고 다니는 것을 자주 본다.

약한 병에도 마음이 강하지 못하면 금세 병이 깊어지고, 반대로 아무리 깊고 위중한 병일지라도 마음이 굳건하면 그 병을 이길 수도 있는 게 병과 환자의 관계이다. 그런걸 좌우하는 게 주변의 격려와 말이므로 병원에서는 말 한마디라도 늘 조심해서 했으면 좋겠다.

▲문성희·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사설

고삐 풀린 물가 허리 휘는 서민가계

7·28 재보선 선거가 끝나자마자 물가 인상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일제히 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과자나 음료수, 술, 의약품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필품도 최근 크게 올랐거나 인상이 예고된 상태여서 서민가계를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1일부터 전기요금은 평균 3.5% 인상하고 도시가스요금은 9월1일부터 평균 4.9% 올리기로 했다. 여기에다 연탄,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도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가고 알루미늄, 밀가루 등 국제 원자재가격 및 유가까지 오를 조짐이라니 올 하반기 물가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쓰레기 봉투,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공공·서비스요금도 인상 조짐을 보이고 있어 자칫 물가 대란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물가 인상이 러시를 이루는 것은 유가 등 소비자 물가에 큰 영향을 끼치는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고, 예상보다 빠른 국내경기 회복세로 수요가 늘면서 물가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공요금·원자재가격·유가 상승은 곧장 상품값 인상으로 이어져 2차 물가상승의 악순환 고리를 만든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이 올 소비자 물가가 3%대 후반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하는 등 하반기 물가를 걱정하는 이유다.

물가는 반드시 잡아야 한다. 경제회복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서민가계의 입장에서 물가 인상은 심각한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연내 최소한 한두 차례의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태에서 물가 인상이 가중되면 서민가계의 주름살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우선 한전,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 효율화 등 강도높은 자구 노력을 통해 국민에게 돌아갈 부담이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유통구조의 효율화와 같은 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물가안정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방만한 광주시 위원회 원점서 재정비해야

광주시가 산하 98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 시는 먼저 법령 및 조례의 대상이 아닌 위원회는 가급적 신설을 억제하고, 신규 위원회 설치가 필요한 경우 존속기한을 최대 5년으로 하는 '일몰제'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위원회 참여는 관계전문가와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제와 추천제를 도입하는 한편 위원의 중복 위촉 및 장기 연임자는 반드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위원회 회의 주요 내용 등을 개최 후 10일 이내에 광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투명성도 제고할 계획이라고 한다.

광주시 산하 위원회는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숫자가 많고 방만하게 운영돼 수차 지적을 받아왔다. 전체 98개 위원회 가운데 최근 3년 동안 연간 단 1차례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12곳이나 된다. 위촉위원 1377명 중 2개 이상의 위원회에 참여하는 중복위원이 196명에 달한다. 위원회는 대부분 회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밀실 논의로 일관해 비판이 뒤따랐다.

위원회의 신설은 해당 부서가 전시행정에 이용하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한 구실을 했다. 단체장이 바뀌거나 위원회가 이슈가 되는 경우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고 호들갑을 떨다가도 다시금 원위치되는 게 엄연한 현실이었다.

광주시가 이번에 위원회를 손질한다고 하니 '유명유실'한 위원회로 거듭나기를 당부한다. 물론 시 산하 98개 위원회 중 76%인 74개가 법령상 설치가 의무화돼 있어 자치단체로선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한 위원회 구성과 공정·투명한 운영은 광주시정의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이다.

無等鼓

도시 경쟁력

도시 경쟁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수많은 도시들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 경제규모, 정주의식, 경관과 환경, 문화예술, 지속가능성, 삶의 질 등등 평가자의 가치관과 기호에 따라 다를 것이다. 더욱이 단일항목이 아닌 다양한 지표들로 순위를 매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요, 논란을 부를 소지도 적지 않다.

중국 정부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은 2006년부터 세계 주요 도시 500곳을 대상으로 '전세계 도시경쟁력보고'(全球城市競爭力報告)를 발표하고 있다. 2009~2010년에는 뉴욕이 1위를 차지했고 서울은 9위에 올랐다. 국내 광역시들은 172위(울산)~290위(대구)에 포함됐고, 수원과 경주, 전주를 포함한 11개 도시가 50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2007~2008년 조사에서 295위였던 광주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의아한 일이었다. 순위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2년 사이 500위권 밖으로 사라져버린 것은 무엇 때문일까.

중국사회과학원 도시경쟁력연구센터측은 "광주의 사회 및 기업에 대한 지표와 수치를 찾지 못해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번엔 그러한 자료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어처구니없는 답변이었다. 산하에 수십개의 연구소를 거느린 국무원 직속 중국 최대 규모 연구기관의 답변치곤 궁색했다.

하지만 광주시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홈페이지에 광주의 현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지표들을 수록하고, 평가에 앞서 자료를 적극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뒤늦게나마 '도시경쟁력강화위원회'를 만들기로 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연구기관들이 내놓는 순위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글로벌경쟁시대 도시브랜드를 높이고 광주를 마케팅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정후식 정경부장 who@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정 경 부 2200-612 체 육 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